

장성, 전남도민체전 유치 성공

23개 종목 2천여명 선수 참여
종합운동장 5천여명 수용 가능
“군민, 체육인 함께 이룩한 쾌거”



장성군이 2025년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장성군 제공

5만 장성군민의 염원이 드디어 꽃을 피웠다. 장성군이 2025년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전남도민체전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시범종목 포함 23개 종목 2만 2,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도내 최대 규모 체육대회다.

그간 장성군은 지난해 10월 유치신청 이후 올 해 4월 현장실사 등 개최지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그 결과, 25일 전남도체육회 이사회 결정으로 제64회 전남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거두게 됐다.

전남의 관문이자 호남의 중심인 장성군은 KTX와 호남고속도로가 경유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천년고찰 백양사, 축령산, 장성호, 황룡강 등 뛰어난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해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오래전부터 도민체전 개최지로 물망에 올랐지만 대규모 체육행사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점이 발목을 잡았다. 이에 장성군은 황룡강 부근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했다. 신축 종합운동장은 관람객 5,0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대한육상연맹이 인증한 400m 8레인 규모 육상 트랙도 갖추고 있다.

특히,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위라벨돔구장과 흥길동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밀집돼 있어 효율적인 대회 진행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장성호하류지역 체육공원에 축구, 야구 전용경기장 각 1개, 겸

용경기장 1개를 조성 중이다. 2025년 도민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2레인 규모 불링장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사격을 제외한 전 종목 시합을 지역 내에서 치를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 역사상 최초로 열리게 될 대규모 체육행사의 ‘2025년 제64회 전남도민체전’은 시군 화합과 전남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5만 군민의 염원과 장성군 개최를 바라는 체육인들의 노고가 빛어낸 소중한 대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장성=전일용 기자

화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박차

도시정책·스마트 기술 활용 교육
주민 안전 등 정보통신기술 접목

화순군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무원 마인드 교육과 공무원 면담조사를 실시했다.

공무원 마인드 교육에서는 도시정책 및 스마트 기술(ICT)을 활용하는 업무 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유시티에서 메타버스가, 도시의 진화 스마트시티 에볼루션’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직원 역량교육을 수행했다. 또 공무원 면담 조사에서는 20개 실·과·소 51개 팀을 대상으로 화순군 스마트도시 사업 도출을 위한 현황자료 수집 및 요구사항 분석

을 수행했고, 각 부서의 의견수렴, 스마트도시 관련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화순군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화순군은 기존 시가지 등 구도심에 주민 안전, 교통편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구상하고 있다.

민선 8기 구북구 군수 공약사항인 화순 삼천지구 스마트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주택 주거단지, 행복지구 등이 들어설 신도시에 스마트화 기반 방향,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화순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군민을 대상 설문조사 및 스마트 리빙랩을 운영해 군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행력 높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담양군은 최근 백동 LH 2단지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 /담양군 제공

함평, 신선농산물 수출 길 활짝

농식품부 스마트팜 신축 공모 선정

함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스마트팜 온실신축 공모사업은 채소·화훼류 등 생산성 및 품질 향상과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함평군에서는 얼마전 박지원 농가가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컬러 방울토마토(0.9ha)를 재배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어촌공사 함평지사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업무위·수탁계약을 추진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쳐 연내 온실을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팜 비닐은

실 신축 ▲자동화 순환식 수경(양액)재배 시스템 ▲ICT활용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해 연중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ICT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온실 신축을 통해 시설 내·외부 및 작물 근권부 환경까지 최적화된 생육 관리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품질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스마트팜 온실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ICT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팜으로 미래농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담양 “마음이 힘들 때 버스에 올라타세요”

백동LH서 주민들 건강검진

담양군은 최근 백동 LH 2단지에서 전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해 백동 LH 2단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스트레스 측정, 가상현실 힐링기기 체험,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 홍보 등을 실

시했다.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정신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군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영암 ‘맞춤형 방문 재활서비스’ 인기

영암군보건소가 6월까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하나로, 대학의 재활전문요원들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운동교육과 재활상담·평가를 진행한다.

특히 뇌병변, 지체장애 등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 동작 교육 등 신체 기능 향상 운동지도도 실시한다.

아울러 재활 운동물품도 지원해 프로그램 외에도 장애인 스스로 자기 몸을 관리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장애인은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와 나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해주니 너무 고맙고 좋다”고 말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재가장애인 정기 방문 재활서비스로 보건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장흥, 표고산업 발전 방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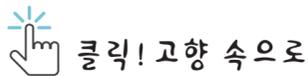
장흥군은 29일 “버섯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장흥 대표 특화작목인 표고버섯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민·관·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장흥군, 장흥버섯산업연구원, 중군생산업체, 가공유통업체·농협APC, 표고생산자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표고버섯을

생산하는 임가를 조직화하고, 생산성 향상 등 표고산업 발전 중장기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남진 장흥명품특산물 축제 개최, 장흥표고브랜드 활성화, 버섯 신규농업인 진입장벽 완화, 원목표고스마트팜 초기모델 개발,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 표고버섯 가공물 판로 개척 등이 제시됐다. /장흥=이옥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 장동면, ‘장흥애살기’ 운동 홍보

장흥군 장동면은 내직장, 내고장 장흥주수갖기 ‘장흥애살기’ 실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문수연 장동면장은 최근 지역 업체인 대성산업을 방문해 인구 유출에 따른 관내 미 전입자의 전입신고를 독려했다. 장흥군에 주수 찾기를 통한 특별한 혜택인 전입 혜택과 결혼 혜택을

적극 홍보했다. 선학 대성산업 대표는 “30여명의 직원 중 90% 이상이 장흥 주수 갖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여름철 가뭄 대비와 겨울철 도로 결빙 방지에 대해 장동면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 면장은 29일 “지역사회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함평,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 개강

함평군 읍면별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개강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읍면별 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함평읍 ‘흙패선재봉’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한다. ‘읍면별 마을평생학습’은 읍면당 1개 강좌씩 총 9개 강좌, 108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읍면별 프로그램은 흙패선재봉(함

평), 드로잉(손불), 생활도자기(대동), 우쿨렐레(월야), 바리스타(나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부 읍면에서만 시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군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9개 읍면 전체로 확대 실시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영광, 어르신 행복 두드림 사업 진행

영광군은 최근 군서면 덕산경로당을 시작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어르신 행복 두드림 사업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주관 사회혁신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군서면 하루리 두드림가 두드림봉사단이 돼 군서면 소재 경로당을 순회하며 홀로 어르신

에게 문화공연, 생일상 차려드리기, 발마사지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군서면 하루리 두드림가 대표인 “어르신들이 활짝 웃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고 보람 된다”면서 “남은 행사도 회원들과함께 어르신들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윤순 기자